



김제 지평선배 400t 수출길

연말까지 대만·미국 등

김제지역에서 생산된 배가 해외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

김제시는 25일 대만 14t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지평선배' 400t 이상을 수출할 예정이다.

수출 품종은 국내에서 육성한 조생종 '원황'이다.

지평선배는 51개 농가가 35㏊에서 재배한 지평선배는 과육이 부드럽고 과즙도 풍부해 식감(食感)이 좋다. 저장기간도 일반 배보다 2배가량 길어 상품성이 높다.

시농업기술센터는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배 재배교육을 실시했으며 ▲수출상대국 기준에 적합한 안전농산물 생산 환경 구축 ▲농약안전사용 지도 ▲수출용 배 봉지 씨우기 등을 지원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앞으로도 품질향상과 철저한 선별로 김제 농산물의 위상을 높여 농산물 수입 개방화 시대에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원 '람천' 생태하천으로 조성돼야

지리산 생명연대 등 주장

지리산 생명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가 추진중인 '람천 고향의 경' 사업을 생태하천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람천에는 수달과 얼룩새 코미구리 등 멸종 위기종과 고유종이 서식하는 습지형 하천으로 '고향의 강' 사업 때문에 서식지 파괴와 멸종이 우려된다'며 '정비사업이 생태·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생태하천 전문가와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주민이 참여한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기본계

획과 기본구상안, 실시설계계획 등이 진행될 때 조정·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리산 생명연대 최회연 사무처장은 "고향의 강' 사업은 습지가 잘 발달한 람천의 하천을 파괴하는 건설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생태하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람천은 지리산 정령치와 세걸산에서 시작돼 운봉읍과 인월·산내면을 걸쳐 흐르는 길이 19.8km의 청정하천이다. 시는 오는 2016년까지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동수문보 설치와 자연형 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순창 강천산 새단장 가을 관광객 맞이

순창 강천산이 오랜만에 새단장하고 가을 관광객을 맞게 된다.

순창군 강천산 관립공원 내 산책로에서 10년 넘게 불법으로 영업해온 노점상들이 최근 자진 철거했다.

군은 '불법 노점영업으로 관광객의 불편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려 했지만 노점상 생계를 고려해 임시 영업구역을 지정하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하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하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하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서비스 부족에 바가지 요금... 손님 내쫓는 군산 비응항 상가

상권 침체 불러 410개 점포 중 102곳 입주 불과

새만금방조제 입구에 있는 군산 비응항의 상권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문을 연 비응항(면적 50만1000㎡)에 입주할 수 있는 상가는 총 410개에 이르지만 8월 현재 운영중인 상가는 고작 102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가수 219개에 비해 1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진 수치다.

이처럼 비응항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관광시설이 부족한데다 바가지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상

인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떨어져 관광객들이 방문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최근 폐업위기를 맞은 비응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다.

시는 최근 '비응항 발전협의회'와 시 관련부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지구단위 계획변경 ▲경찰의 음주단속 활동 ▲비응항 공원 키이를 설치 등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비응항 할

성화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군산시의 비응항 지원계획에 앞서 상가 주인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의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비응항 상권이 살지 못하는 이유로 상점 주들의 바가지 상술과 서비스 정신 부족을 꼽고 있다.

시민 김모(53)씨는 "새만금 자체가 세계적인 관광시설인데 불거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비응항을 살리려면 값어치에 맞는 음식을 내놓고 순손을 맞는 상가 주인들의 태도부터 확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다문화 가정에 희망송아지

능률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24일 남원시 운봉을 다문화가정 등 관내 11가구에 '꿈을 키우는 희망의 송아지'를 전달했다. 송아지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데 재원이 되는 일종의 '증자돈'이다.

/전북취재본부=박선기자 bs8787@

'정읍한우' 유통체계 개선 시급

전문 유통회사 만들어 브랜드 파워 높여야

소득 향상 중간 보고회

'정읍 한우'의 명성을 더욱 높이고 한우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유통업체와 연계하는 새로운 방식의 유통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시는 지난 23일 시 제2첨사 강당에서 김생기 시장을 비롯 한우브랜드 경영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 한우 품질향상 연구용

역' 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기수(지역농업 네트워크 전무) 책임연구원은 '정읍 한우는 품질의 우수성을 비해 브랜드 유통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전문 유통업체를 모집해 브랜드 유통을 전담해 함으로써 정읍 한우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수 연구원은 "전문 유통업체와의 연계로 농가의 소득을 극대화

기 위해서는 쇠고기의 등급에 따라 장려금을 1++(지방도 9번 20만원, 지방도 8번 15만원), 1+(10만원) 등을 지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구제역 이후 한우산업의 여건을 비롯해 ▲전국 한우 사용부수 ▲정부의 한우 관련 정책 ▲정읍시 한우산업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 정읍 한우 성공 방안이 제시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안을 중심으로 세부 방침을 결정하고 9월 중 최종 보고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 유통회사를 모집해 한우 유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하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 노점상들이 자진 이동도록 했다. 군은 노점상들이 떠난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공원 안내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6개 등산코스(총 21.8km)를 정비하고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소,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